



## 세계화와 국가시험 · 인증기관의 역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과장 성호용  
02) 428-75625

오늘날의 세계를 우리는 ‘지구촌 시대’라 부른다.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동일한 생활권내에 들어섰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올림픽과 같은 대회에 참석하고 월드컵에 열광한다. 전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힙합’ 음악을 듣고 흥겨워하며 심지어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나라 게이머들과 게임을 하기도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흐름에 뒤처진다는 것은 경쟁에서 뒤쳐진 외톨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교통과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예를들면, 네트워크화로 인한 엄청난 정보의 양산 및 공유로 모든 영역에 걸쳐 시장개방 요구가 가속화되고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바람은 ‘문화적인 영역’, ‘안보적인 영역’ 및 ‘경제적인 영역’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뜻이 된다.

먼저, ‘문화적인 영역’이란, 위에서 거론하였듯이 전 세계가 문화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과 체육, 영화에 이르기 까지 모든 문화적인 분야에 대해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안보적인 영역’이다. 이 분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이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시장’을 의미한다. 이 ‘경제적인 영역’에 대한 세계화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오래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통일제국을 완성한 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물론, 분서갱유(焚書坑儒) 등의 좋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지금의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문자 및 언어의 통일이요, 또 하나는 화폐의 통일이요, 마지막으로는 도량형의 통일이다. 그 당시 진시황의 진나라는 전국

시대의 7개 국가가 통일된 국가이다 보니 당연히 사용하는 언어도 문자도 달랐다. 화폐나 도량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수레의 크기조차 달랐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의 중국'을 계획하였던 진시황에게는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를 통일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위와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단 언어는 '영어'가 거의 세계의 공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화폐는 '달러'가 보편적으로 통용이 된다. 도량형 역시 '미터법' 등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야에서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큰 장벽은 관세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관세를 통하여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이후 그동안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은 해소되었으나, 새로운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한 자국시장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가규격을 2010년까지 일치화 또는 부합화하기로 결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즉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있으며,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EU와 미국, EU와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국가간 MRA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KS규격을 국제규격인 ISO 또는 IEC 규격으로 일치화 및 부합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으며, PL법(제조물 책임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규격의 국제기준 부합화는 결국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의 규격수준을 선진국 규격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결과가 되었고, 이것은 곧 제조업체로 하여금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Safety)'을 갖는 제품생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부합화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는 국내 시장의 개방을 의미하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맞는 제품생산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규격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국제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장벽 해소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의 용이함,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제조업체 및 국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국제적 규격기술력 확보 등의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 규격 부합화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EU 및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규격 제정 및 MRA 체결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규격 제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불리한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MRA



## 시 책 단

체결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인 시험 인증기관의 능력확보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시험 인증기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에 시험데이터의 상호인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선진국 수준의 시험 인증기관의 유무가 곧 MRA 및 국제 규격에 대한 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국제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모든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이 가능하고 그 기관의 데이터가 공신력이 높아서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인증기관의 여부라 하겠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시험 인증기관의 역량은 우선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소(CBTL) 및 인증기관(NCB)으로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IEC 국제시험소(CBTL) 및 인증기관(NCB)에서 발행한 시험 및 인증서가 IEC 회원국 45개국에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MRA 체결로 시험성적서가 상호인정이 될 경우, 뛰어난 시험 인증기관이 있는 국가의 제조업체가 상대국가의 규격을 적은비용 및 빠른 시간내에 취득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제화’ 및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에 그리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여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기전자 제품의 국제규격의 부합화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체는 기존의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MRA 체결시 국가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시험 인증기관은 국제규격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떠한 기술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 인증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시험, 검사 및 인증분야 역시 하나의 산업분야로 인식하여야 하며, 국가시험 인증기관은 시험 검사 인력양성, 시험설비 확충 및 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하여 국제공신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KOLAS 또는 CB 인증제도를 활성화시켜,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의 시험 인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시험 인증기관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EU 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하여 환경분야를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품목을 더욱더 확대한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부딪치게 되는 여러가지 도전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간 상호 인증협정(MRA) 등 많은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체, 국가시험 인증기관 및 정부가 하나가 되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2만불 시대’ 및 선진국 대열 합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